

2026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

메시지 3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함

성경: 딤후 4:7-8, 딤후 1:6-7, 4:22

[딤후 4:7-8] 속되고 허무맹랑하게 꾸며 낸 이야기를 거절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⁸⁾ 신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에 대해 약속해 줍니다.

[딤후 1:6-7]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⁷⁾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I. 그릇인 사람은 자신의 영을 사용함으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여, 그의 가장 깊은 속에서 생명이 강처럼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감으로, 하나님의 건축물 곧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을 위한 귀한 재료들로 변화되어야 했다 — 창 1:26, 2:7-12, 22, 딤후 4:7-8.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창 2:7-12]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⁸⁾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⁹⁾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였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¹⁰⁾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다. ⁽¹¹⁾ 첫째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월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¹²⁾ 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마노 보석도 있었다.

[창 2:22]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딤후 4:7-8] 속되고 허무맹랑하게 꾸며 낸 이야기를 거절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⁸⁾ 신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에 대해 약속해 줍니다.

- A. 하나님의 숨은 우리 사람의 영이 되었고, 우리의 영은 기름이신 하나님을 담고 우리에게 빛을 주는 하나님의 등이다 — 창 2:7, 잠 20:27.

[창 2:7]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잠 20:27] 사람의 영은 여호와와 등이라 /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 B. 사람의 영은 타락으로 인하여 고장난 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회복을 통하여 생기를 주시는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으로 거듭나고 재건축되고 강하게 된다 — 창 2:7, 잠 20:27, 시 18:28, 요 3:6, 계 4:5, 5:6, 고전 15:45 하.

[창 2:7]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잠 20:27] 사람의 영은 여호와와 등이라 /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시 18:28] 주님은 저의 등불을 밝혀 주시는 분이시니 / 여호와 저의 하나님께서 저의 어둠을 밝혀 주십니다.

[요 3: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계 4:5]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계 5:6]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고전 15: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 C. 애석하게도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사람의 영을 간과하고 무시할 뿐 아니라, 심지어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기까지 한다 — 비교 살전 5:23, 히 4:12, 유 19.

[살전 5: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히 4: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어 찢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D.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때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한 분께서 앉아 계신 것과 우리 자신이 패워된 것을 볼 수 있다 —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계 4:2), “은혜의 주님께 요구하니 내 영이 흐르게 하옵소서 고자세 버리고 내 보좌 버리니 생수 강 흐르게 하옵소서.”(영한동번 찬송가 846장 5절, 히 4:16과 각주 2, 겔 1:26과 각주 1 참조).

[계 4:2]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각주 [2]

의심할 것 없이 여기 언급된 보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이다(계 4:2). 하나님의 보좌는 온 우주에 대한 권위의 보좌이다(단 7:9, 계 5:1). 그러나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며,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 덮개(시은좌, 출 25:17, 21)로 상징되었다. 이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이기도 하다(계 22:1).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양, 곧 그리스도의 보좌로 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은 4장 12절에 언급된 우리의 영이다.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롬 8:34) 바로 그분은 또한 지금 우리 안에(롬 8:10), 즉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엡 2:22)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딤후 4:22).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곧 하늘의 문인 베엘에서 그리스도는 땅을 하늘과 연결시키시고, 하늘을 땅으로 이끄시는 사다리이시다(창 28:12-17, 요 1:51). 오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이 하늘의 문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다리로서 땅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키시고, 하늘을 우리에게로 이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하늘의 문을 통해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만진다.

[겔 1:26]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

에스겔서 1장 26절 각주 [1]

네 생물은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의 움직임뿐 아니라 주님의 행정과 통치를 위해 있다. 주님은 그분의 나타나심과 움직임과 통치를 위해서 그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 위에 계신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땅의 하나님이시다(참조 마 11장 각주 25). 생물들을 통하여 하늘들은 땅을 향해 열리고 땅과 연결된다.

주님의 임재는 항상 그분의 보좌를 수반한다. 주님의 보좌는 셋째 하늘에뿐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도 있다(계 4:2-3, 히 4:16과 각주 16, 비교 딤후 4:22). 수정같이 맑은 창공 위에 있는 보좌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생활 가운데 ‘맑은 하늘’이 있을 때 우리가 보좌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됨을 가리킨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보좌를 위에 지닌 맑은 하늘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으뜸의 지위를 드리며 하나님의 권위와 행정에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보좌를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게 된다.

- E. 사람의 존재 가운데 중앙 정부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사람의 영이어야 한다. 자신의 영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 고전 2:14-15, 3:1, 14:32, 엠 3:16, 벤전 3:4, 단 6:3, 10.

[고전 2:14-15]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에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그런 일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¹⁵⁾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고전 3:1] 형제님들,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할 때에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들처럼 대할 수 없었고, 육체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기들처럼 대하였습니다.

[고전 14:32] 신언자들의 영은 신언자들에게 복종합니다.

[엠 3: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벤전 3:4] 온유하고 정숙한 영의 썩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단 6:3] 이 다니엘에게 탁월한 영이 있어 총리들과 지방관들 가운데에서 두각이 드러나자, 왕은 다니엘을 온 왕국 위에 세우려 하였다.

[단 6:10] 다니엘은 그 금령에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으로 가서(그의 위층 방 창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 전에 늘 하던 대로 날마다 세 번 자신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 F. 사람의 가장 깊은 속부분인 영은 내적 기관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다(요 4:24, 롬 1:9). 혼은 바로 우리의 자아(비교 마 16:26, 눅 9:25), 곧 우리의 영과 몸 사이에 있는 중간 부분이며, 자의식이 있으므로 우리가 개성을 갖는다. 우리의 외적 부분인 몸은 밖의 기관이며, 세상에 대한 지각이 있으므로 우리가 물질세계를 접촉할 수 있다(살전 5:23).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롬 1:9]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마 16: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

[눅 9: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든지 빼앗긴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살전 5: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1. 몸은 혼을 담고 있으며,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사람의 영 안에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혼 안에는 자아가 있으며, 몸 안에는 물질적인 감각이 있다.
2. 우리 영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이며, 하나님을 접촉하는 영적인 기관이다(요 4:24, 롬 1:9).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바로 영 안에서이다(요 3:6). 성령께서 거하시고 일하시는 곳은 바로 우리의 영이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곧 그분께서 우리를 신화시키시고 우리의 온존재를 ‘그리스도화’하시는 것의 열쇠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바로 영 안에서이다(딤후 4:22, 갈 6:18).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롬 1:9]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요 3: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갈 6: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아멘.

3. 하나님은 먼저 거듭남(요 3:5-6)을 통해 우리의 영을 점유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생명 주시는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영에서 혼 안으로 확산시켜 혼을 적시시고 변화시키심으로써(롬 12:2, 고후 3:18),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혼을 통해 우리의 죽을 몸을 소생시키시고(롬 8:11, 13) 그분의 생명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심으로써(빌 3:21),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빌 3:21 과 히 4:12 각주 2, 3 참조).

[요 3:5-6]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⁶⁾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롬 12: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롬 8: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롬 8:13]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빌 3:21]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히 4: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각주 [2]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세 부분, 곧 영, 혼, 몸으로 된 존재이다(살전 5:23). 여기 4 장 12 절에는 관절과 골수라는 몸의 부분들과 그리고 혼과 영이 있다.

앞 절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묘사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1) 그들이 구출되었던 이집트, (2) 그들이 방황했던 광야, (3)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이었다. 이 세 장소에서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세 단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들, 곧 신약의 믿는 이들에 대한 예표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속받아 세상에서 구출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 방황하는 이들이 되었다. 우리의 방황은 항상 혼 안에서 일어난다.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질적이고 죄악스러운 것들에 속한 쾌락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이집트로 예표된 세상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혼 안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광야에 있게 된다.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가나안에 있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 항상 원망하고 따지며 비난했다. 그것은 분명히 혼 안에서 일어난 것이었지, 영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순종하였으며, 목표를 향해 힘써 나아갔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의 혼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그 당시 이 책의 수신자들인 히브리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옛 히브리 종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 안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혼 안에서 방황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이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처럼 그들이 머뭇거리는 것을 찔러 그들의 영과 혼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골수가 관절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영도 혼 안의 깊은 곳에 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려면 주로 관절을 깨뜨려야 한다. 같은 원칙으로 영과 혼을 나누려면 혼이 파쇄되어야 한다. 히브리 믿는 이들의 혼, 즉 머뭇거리는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의심하는 것과, 혼 자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 혼은 살아 있고 효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 파쇄되어야 했다. 이것은 그들의 영과 혼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의 혼은 바로 우리의 자아이다(마 16:25, 비교 눅 9:25).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혼, 곧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마 16:24, 눅 9:23). 우리 영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이며, 하나님을 접촉하는 영적인 기관이다(요 4:24, 롬 1:9).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바로 영 안에서이다(요 3:6). 성령께서 거하시고 일하시는 것도 바로 영 안에서이며(롬 8:16),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바로 영 안에서이다(딤후 4:22, 갈 6:18). 따라서 이 책의 저자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혼의 방황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고, 혼을 부인하며,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 안으로 힘써 나아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을 누리라고 권면했다. 만일 그들이 혼의 방황 가운데 머뭇거리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목표를 놓쳐 버릴 것이며,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과 왕국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각주 [3]

우리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이고(요 4:24),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이다(막 12:30).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담고, 체험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혼은 세 부분 곧,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 또한 세 부분 곧, 양심과 교통과 직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은 혼과 영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혼의 모든 부분마다 영의 일부인 양심이 더해져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는 사상을 가진 생각과 의도를 가진 의지가 있다. 사상은 의도에 영향을 주며, 의도는 사상을 수행한다.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사상과 우리의 의지 안에 있는 의도를 분별할 수 있다. 앞 절들에서 저자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히브리 믿는 이들의 사상과 의도가 무엇이며, 또한 그들의 사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었다.

II.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건축하는 것은 성막과 가슴받이로 모두 예표되었고 하나님의 건축물의 열쇠는 우리의 연합된 영이다.

- A. 시팀 나무에 금을 입혀 만들어진 성막의 널빤지들을 연결하는 가로대들은 사람의 영과 연합된 신성한 영인 연합된 영을 상징하고 이 연합된 영은 화평의 매는 띠가 된다 — 출 26:26-30, 롬 8:16, 엡 4:3-4.

[출 26:26-30] 또 시팀 나무로 가로대를 만들되, 성막 한쪽 옆의 널빤지들에 다섯 개, ⁽²⁷⁾ 성막 다른 한쪽 옆의 널빤지들에도 가로대 다섯 개, 성막 뒷면인 서쪽의 널빤지들에도 가로대 다섯 개를 만들어라. ⁽²⁸⁾ 널빤지들 가운데를 지나는 중간 가로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로지르게 하여라. ⁽²⁹⁾ 그리고 널빤지들에 금을 입히고, 가로대를 끼울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가로대들에도 금을 입혀라. ⁽³⁰⁾ 너는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라.”

[롬 8: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엡 4:3-4]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 B. 신약에서 가슴받이 안에 넣은 우림과 둠밈의 실재는 연합된 영이다. 연합된 영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영, 곧 성령께서 우리의 받아들이는 영인 거듭난 사람의 영(롬 8:4, 14)에 내주하시는 것이다 — 출 28:30 과 각주 1, 2, 3, 롬 8:4, 14, 고전 2:9-12.

[롬 8: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롬 8:14]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출 28:30] 너는 판결 가슴받이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두어, 아론이 여호와 앞으로 들어갈 때에 그것들이 아론의 가슴에 있게 하여라. 아론은 늘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판결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출애굽기 28 장 30 절 각주 [1]

가슴받이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은 후에 이 가슴받이는 단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판결하시기 위한 것이 되었다. 이곳과 신명기 33 장 8, 10 절에서 하나님의 판결은 율법의 판정과 판결(참조 눅 1 장 각주 6)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의 판결은 우림과 둠밈과 관계있다. 구약에 의하면 가슴받이에 더해진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인도를 알려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수단이었다(참조 출 28 장 관주 30a). 가슴받이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판결을 포함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분의 판결이 포함되는데, 이 판결이 하나님의 인도가 된다. 영적인 체험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와 자아와 옛사람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심판해야 한다. 로마서 8 장 14 절에서 그 영의 인도는 가슴받이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의 실재로서 8 장 1 절부터 13 절까지에 있는 모든 판결의 결과이자 총체이다(참조 롬 8 장 각주 14).

하나님의 인도인 그분의 말씀이 가슴받이를 통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인도를 알려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우림과 둠밈이 더해진 가슴받이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새겨진 열두 보석이 있는 가슴받이가 만들어져야 했고 대제사장이 가슴받이를 가슴에 지녀야 했다. 동일한 원칙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분(우림)이시자 온전하게 하시는 분(둠밈)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교회가 영적인 알파벳이신(고후 3:3) 그리스도로 새겨진 믿는 이들 곧 변화된 투명한 보석들로 건축되어야 하고, 인도하는 이들이 교회를 가슴에 품어야 한다.

출애굽기 28 장 30 절 각주 [2]

‘빛들’, ‘발광체들’이라는 뜻이다. 우림은 가슴받이 안에, 곧 열두 보석 아래에 넣은 발광체였다. 우림에는 기름을 담아 불을 붙일 수 있었는데, 기름에 불을 붙이는 데 사용된 불은 제단에서 온 것이었다. 우림에는 열두 발광체가 있어서 각 발광체가 가슴받이에 있는 투명한 열두 개의 보석에 빛을 비추어 보석들이 빛을 내게 했다(다비드 바론). 우림은 그 영(기름)과

십자가(제단에서 온 불)를 통해 빛을 내시는 빛이시며 빛을 비추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요 8:12, 엠 5:14).

출애굽기 28장 30절 각주[3]

‘온전하게 하는 것’,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가슴받이의 열두 보석에 있는 이름들은 히브리어 알파벳 스물두 자 중 열여덟 자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머지 네 자는 뭉뚱이었으므로 이것이 뭉뚱을 온전하게 하는 것, 완전하게 하는 것이 되게 했다(다비드 바론). 우리가 각각의 보석을 비춤으로써 스물두 자의 온전한 알파벳을 사용하여 단어와 문장을 조합해 낼 수 있었다. 뭉뚱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히 12:2). 그리스도는 새기는 것(참조 출 28장 각주 21)과 완성하는 것 둘 다를 위한 영적인 알파벳이다. 우리와 뭉뚱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수단이시며(히 1:2) 하나님의 증인이시자 하나님의 증거(계 3:14)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신약에서 우리와 뭉뚱의 실재는 연합된 영이다. 연합된 영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영 곧 성령께서 우리의 받아들이는 영인 거듭난 우리 사람의 영(롬 8:4, 14)에 내주하시는 것이다.

[고전 2:9-12]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1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11)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12)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 영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III. 신성한 영께서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고 이 두 영이 한 영으로 함께 연합된 것, 곧 연합된 영은 하나님의 경륜의 전략적이고도 중심적인 지점이다 — 요 3:6, 롬 8:16, 딤후 4:22, 고전 6:17, 딤펢전 1:4, 고후 4:13.

[요 3: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롬 8: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딤펢전 1: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고후 4:13] 또한 성경에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다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A.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위대한 길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그 영을 따라 살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 욥 10:13, 엠 3:9, 롬 8:4, 갈 5:25.

[욥 10:13]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주님 마음속에 감추셨습니다. / 저는 이러한 것이 주님께 있는 줄 압니다.

[엠 3: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롬 8: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갈 5: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B.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접촉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몸이 우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이다 — 엠 1:17, 2:22, 3:5, 16, 4:23, 5:18, 6:18.

[엡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엡 2: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엡 3:5]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 주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언자들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영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엡 3: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엡 4: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엡 5:18]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엡 6: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 C.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지을 수 없으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고, 우리는 우상들에서 지켜진다 — 요일 5:4, 18-19, 21.

[요일 5:4]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일 5:18-19]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자신을 지키므로, 악한 자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¹⁹⁾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요일 5:21]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십시오.

- IV.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교회의 하락에 대한 예방 접종이며, 성도들의 생명의 성장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위해 이러한 예방 접종을 받아들이고 분배하는 열쇠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다 — 빌 1:25, 딤후 4:7-8, 딤후 1:6-7, 4:22, 행 6:10, 고전 14:32.

[빌 1:25]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딤후 4:7-8] 속되고 허무맹랑하게 꾸며 낸 이야기를 거절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⁸⁾ 신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에 대해 약속해 줍니다.

[딤후 1:6-7]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⁷⁾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행 6:10] 그러나 그들은 스테반이 지혜와 그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 낼 수 없었다.

[고전 14:32] 신언자들의 영은 신언자들에게 복종합니다.

- A.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인 경건은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분배의 결과이며, 이러한 분배는 교회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살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 — 딤후 1:3-4, 3:15-16, 4:7-8, 딤후 1:6-7.

[딤후 1:3-4]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⁴⁾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딤후 3:15-16]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¹⁶⁾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 영광 안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딤후 4:7-8] 속되고 허무맹랑하게 꾸며 낸 이야기를 거절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⁸⁾ 신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에 대해 약속해 줍니다.

[딤후 1:6-7]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⁷⁾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 B. ‘훈련하다’라는 단어는 강제성을 내포한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강해지고 주님 안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견고한 습관을 세울 때까지 영을 사용하도록 스스로에게 강요해야 한다 — 딤후 4:7.

[딤후 4:7] 속되고 허무맹랑하게 꾸며 낸 이야기를 거절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 C.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다 — 딤후 1:6-7.

[딤후 1:6-7]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⁷⁾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1. 디모데후서 1 장 6 절은 ‘하나님의 은사’를 언급하고, 7 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거듭난 영인 우리의 연합된 영, 곧 능력과 사랑과 맑은 생각의 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이다.

[딤후 1:6-7]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⁷⁾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2. 구원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을 할 자본을 갖고 있는데, 이 자본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이다.
3.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불이 있다. 사실상 우리의 영이 불이다 — 눅 12:49-50, 롬 12:11, 계 4:5, 잠 20:27.

[눅 12:49-50]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⁵⁰⁾ 그러나 나에게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롬 12:11]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계 4:5]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잠 20:27] 사람의 영은 여호와와 등이라 /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 D. 우리의 영을 훈련하려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둘러싸고 있는 혼의 부분들인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처리해야 한다 — 비고 벤전 3:4.

[벤전 3:4] 온유하고 정숙한 영의 썩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1. 능력의 영은 굴복되고 부활한 의지를 가진 영이고, 사랑의 영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감정을 가진 영이며, 맑은 생각의 영은 새로워진 생각을 가진 영이다 — 딤후 1:7.
[딤후 1: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2. 우리의 사랑스러운 주 예수님은 우리 혼의 목자와 감독이시다. 우리의 혼은 우리의 내적 존재, 곧 실제 인격이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내적 존재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실제 인격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신다 — 벤전 2:25, 시 23:1-6, 비교 히 13:17.
[벤전 2: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시 23:1-6]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한 것 없으리. ⁽²⁾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³⁾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 나를 의의 길들로 안내하시네. ⁽⁴⁾ 제가 비록 /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 저를 위로해 줍니다. ⁽⁵⁾ 주님께서 저의 대적들 앞에서 /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 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 제 잔이 넘칩니다. ⁽⁶⁾ 제 평생에 / 선과 자애가 분명 저를 따르리니 / 저는 여호와와 집에 / 평생토록 거주하렵니다.
[히 13:17]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결산할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혼을 위해 깨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탄식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탄식으로 한다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3. 영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 혼의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의 실재 안에 사는 것에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의 혼을 견고하게 함으로써’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협력해야 한다 — 행 14:22.
[행 14:22] 제자들의 혼을 견고하게 하고,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유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4. 제자들의 혼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1) 주님과 그분에 관한 일들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견고하게 하고(고전 2:16, 빌 3:10), (2)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권익을 위한 마음을 갖도록 그들의 감정을 견고하게 하고(막 12:30, 롬 16:4), (3) 그들이 강하여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행 11:23, 골 1:10, 살전 4:1).
[고전 2:16]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 3: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빌 3:2]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살이나 베어 내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막 12:30]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롬 16:4]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롬 16: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행 11:23]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골 1:10] 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앎으로써 자라기를 바랍니다.
[살전 4:1] 형제님들,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남은 몇 가지를 더 당부하고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서 배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십시오.

- E.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며, 이럴 때 우리는 내주하시는 영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로 누린다 — 고후 12:2 상, 빌 4:11-13, 시 91:1, 살전 5:16-18.

[고후 12: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습니다(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빌 4:11-13]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¹²⁾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¹³⁾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 91:1]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에 거주하는 이는 /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거하리라.

[살전 5:16-18] 항상 기뻐하십시오. ⁽¹⁷⁾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¹⁸⁾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 F.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다 — 롬 8:6, 말 2:15-16.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말 2:15-16]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분께서는 영이 넉넉하신데 어째서 하나이나?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영을 주의하고 누구도 젊어서 얻은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¹⁶⁾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혼하는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다. 그러니 너희의 영을 주의하고 배신하지 마라.

1.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는 내적인 생명과 평안의 느낌, 즉 능력과 만족과 안식과 해방과 생기와 적셔짐과 밝음과 위로의 느낌을 갖는다.
2.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육체에 둘 때, 우리는 내적인 죽음의 느낌, 즉 약함과 공허함과 불편함과 불안함과 낙심과 메마름과 어둠과 고통의 느낌을 갖는다.
3.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내적인 생명과 평안의 느낌에 따른 것이다 — 롬 8:6, 고후 2:13-14.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고후 2:13-14]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¹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 G.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을 분별하는 것이다 — 히 4:12.

[히 4: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우리는 영에 속하지 않고 혼, 곧 자아에 속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부인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 마 16:25, 비교 눅 9:25.

[마 16:25]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눅 9: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든지 빼앗긴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2.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영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은 우리의 영 안에 있다 — 롬 2:28-29, 1:9, 8:4, 12:11.

[롬 2:28-29] 왜냐하면 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외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²⁹⁾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어서 영 안에는 있고 율법 조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롬 1:9]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롬 8: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롬 12:11]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 H.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교회생활을 하며 교회의 하락을 이기는 것이다 — 딤후 2:22.

[딤후 2:22]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 I.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그분의 권익을 위해, 곧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도하는 것, 즉 개인적이고 친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 딤후 1:6-8, 딤후전 1:3-4, 2:1-3, 8, 왕상 8:48, 유 19-21.

[딤후 1:6-8]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⁷⁾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⁸⁾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갇힌 사람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딤후전 1:3-4]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⁴⁾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딤후전 2:1-3]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권유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²⁾ 또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매우 경건하고 정중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³⁾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며,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딤후전 2:8]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일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요망합니다.

[왕상 8:48]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